

OECD와 세계지식포럼



장 대 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ceo@mk.co.kr

1. 세계적인 화두로서의 지식 격차

400년 전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이 말은 지식이 부(富)를 창출하는 핵심이 되는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 더욱 어울릴 법하다. 과거 지식은 소수 유력자의 소유물이었지만 현대 지식은 정보통신기술(IT) 덕분에 많은 사람에게, 그것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지난 4세기 동안 달라진 점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이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오히려 핵심지식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정보 선진국인 미국에

서도 디지털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커지면서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하여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상품이 동시에 전 세계로 전달되고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지식의 창출과 보유는 지역차원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핵심적 IT산업 지식은 다른 지역의 지식과는 그 수준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CNN 등 실시간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번성에도 불구하고 핵심지식은 디지털화되기 힘들고 공유하기도 힘들다.

정보격차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보격차는 그대로 지식격차(Knowledge Divide)로 이어질 수 있다. “Knowledge Gap” 이라고도 불리는 지식격차는 지식에 대한 접근, 이용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에 발생하는 지식 수준과 활용 및 창출능력의 차이를 말한다.

개인간의 지식격차문제는 그대로 국가차원으로 전이될 수 있다. 즉 국가차원에서도 이러한 지식격차가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구분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간 지식격차가 국가간 빈부격차를 고착화하고 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간 빈부격차는 결국 부국과 빈국간에 갈등과 불만을 심화시키고 대립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선·후진국간의 지식격차문제는 국가간 빈부격차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 민간기관, 시민단체간의 글로벌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특히 OECD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조정을 추구하는 정부간 기구로서 일찌감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식활용과 창출방안에 대한 연구 및 국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확장해 전 세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세계지식포럼의 배경과 발전과정

매일경제가 추진해온 세계지식포럼은 바로 이 같은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기구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격차 해소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OECD가 지난 2000년 출범한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OECD 외에 IT 기술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고 있는 글로벌로지파트너십(GKP) 등 국제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연구소, INSEAD와 같은 세계적인 경영교육기관들이 세계지식포럼 운영에 힘을 모으고 있다.

매일경제의 세계지식포럼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체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사회 및 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대규모의 국제 콘퍼런스이다. 세계지식포럼의 출범은 매일경제가 1997년 초 ‘21세기 선진국 건설’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는 한국의 21세기 비전을 ‘두뇌강국’, 즉 ‘창조적 지식국가’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크게 ‘두뇌강국’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국가간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교류와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지난 7년 동안 매킨지, 베인&컴퍼니, 부즈알렌&해밀턴 등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등 싱크탱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10여 차례에 걸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제시하고, 다양한 실천방안이 담긴 15개의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 작품이 「한국보고서(Korea Report)」이다. 매일경제와 비전코리아 추진위원회는 1997년 10월 발간된 이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한 중국의 추격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예견했다. 저임금기반의 중국과 첨단기술을 앞세운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마치 너트크래커(호두까는 기구) 사이에 끼어 있는 처지와 같다고 묘사하고 하루속히 너트크래커를 빠져 나오지 않으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재편을 역설했다.

지식국가로서 한국의 장기 비전을 제시한 「한국 재창조 보고서」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처해 있던 한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린 보고서였다. 예컨대 당시 김대중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창조적 지식기반 건설'을 채택한 것은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였다.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지식포럼은 '두뇌강국'이란 비전을 전 세계가 공유하기 위한 행사이기도 하다.

세계지식포럼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갖

는다. 첫째, 세계 각국 지도자, 다국적기업 최고 경영자, 국제기구의 전문가, 세계적 지식리더들의 논의를 통하여 21세기 지식비전을 공유하고, 둘째, 10대 지식강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혜를 선진국가 및 선진기업으로부터 벤치마킹하고, 셋째, 글로벌 지식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글로벌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선·후진국간 지식격차 해소를 통한 인류공영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포럼이 이루어졌으며, 각 포럼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기업계, 학계, 정계를 대표하는 지식대가와 여론주도자(opinion leader)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지식포럼은 총회, 특별강연, 분과세션 등 크고 작은 50여 개의 회의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해안과 안목을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칼리 피오리나 HP 회장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최고경영자(CEO)들이 매경 세계지식포럼을 찾았으며 세계 IT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1999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2001년도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그리고 폴 크루그먼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세계경제의 현상을 분석하고 향방을 논했다.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 홉킨스대 교수, 에디트 크레송 전 프랑스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오마

에 겐이치 일본 경제평론가, 레스터 서로우 MIT 경영대학원 교수,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오릿 가디시 베인&컴퍼니 회장,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WTO 사무총장 등 각 분야의 지식대가들이 세계지식포럼에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파트너와 네트워킹을 쌓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특히 도널드 존스 턴 OECD 사무총장은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매년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선·후진국간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열의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매년 축사를 보내오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세계지식포럼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세계지식포럼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제안과 행동을 실천해 보였다.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인류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새로운 인류공동의 번영을 구가하자는 차원의 ‘지식르네상스운동(Knowledge Renaissance)’은 세계지식포럼에서 도출된 여러 제안 중 하나의 예이다. 수백 년 전 선조들이 르네상스운동을 펼쳐 우리에게 계몽과 번영의 유산을 남겨주었듯이 이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르네상스운동은 피부색, 성별, 지위, 종교 및 국가 등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하였다. 이 운동은 신뢰에 근간을 둔 글로벌 지식사회 건설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식을 공유토록 유도하고, 특

히 지식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제공하자는 실천강령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사례로는 세계지식봉사단(World Knowledge Corps)을 생각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젊은이들이 세계의 많은 저개발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설립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가간 지식격차를 좁혀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평화롭게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넓게 보면 지식기반 선진국의 기업이나 연구소, 학계가 선진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낙후된 인터넷시설 및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등 매우 기초적인 봉사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아가 현지 이동통신이나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지식빈국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정책자문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선진국은 물론 지식강국으로 도약한 나라들의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명경영과 함께 사회봉사라는 기업윤리적 측면에서 이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1년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출범한 자원봉사기구가 바로 세계지식봉사단이며, 이 봉사단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정보통신기술 자체와 정책자문, 개도국 공무원 등 초청연수, 사이버봉사단 운영, 개도국 전략 및 비전 수립 자문 등이다. 실질적인 봉사자는 개인은 물론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세계지식봉사단은 2002년 1차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IT전문가팀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캄보디아에서는 세계적인 문화유적지인 앙코르와트와 씨엠립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도시계획에 필요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용법 등의 지식을 현지 공무원에게 전수했다. 한동대학교 건설도시환경공학부 교수와 대학생들이 현지 개발담당기구인 압사라(APSARA) 직원들과 함께 한달여 동안 작업을 통해 지식공유를 실천한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비트컴퓨터가 하노이과학기술개발센터(DSTC)와 함께 현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IT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최신 인터넷기술흐름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과정을 개설해 현지 학생들에게 ‘빌 게이츠의 꿈’을 심어주기도 했다.

3. 세계지식포럼에 대한 국제적 관심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세계지식포럼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OECD가 최신 경제, 사회 등 주요 이슈를 다루기 위해 발간하는 월간지인 『옵서버(Observer)』는 세계지식포럼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일찌감치 게재한 바 있다. 옵서버는 “정보통신기술만으로는 경제적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성공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2001년 11월호). 존스톤 OECD 사무총장은 “해마다 열리는 세계지식포럼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이 지식을 전파하고 개발을 촉진해 선·후진국이 모두 부(wealth)를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인식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지식포럼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 외에도 『파이낸셜 타임스』, 『CNBC아시아』, 『일본경제신문』, 『포브스 글로벌』 등 세계 유수 언론이 참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로서도 단단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피터 마틴 전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칼럼니스트는 2003년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후 세계 기업인들에게 세계지식포럼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파트너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세계 유력 언론들의 세계지식포럼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중국의 유력 경제지인 『경제참고보』는 “지식경제의 도전과 기회를 대주제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은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어떻게 지식을 이용하고 창조할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세계지식포럼의 명성은 세계적인 지식경영 관련 전문 컨설팅업체와 지식경영 전시 전문업체들의 협력요청으로 이어졌다. 지식경영 전문 컨설팅업체인 영국의 텔레오스(Teleos)는 한국 등 아시아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지식기업상(Most Admired Knowledge Enterprise Award)'을 새로 제정해 지난 2002년부터 세계지식포럼 행사장에서 매년 발표, 시상하게 된 것이다. 텔레오스는 주로 유럽과 북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에 주는 글로벌 MAKE상을 운영해왔는데, 이 순위는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와 최고 지식경영자 등 전 세계 1,800여 명의 지식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경영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아크그룹(Ark Group)도 세계지식포럼의 중요성을 인식해 세계지식포럼 행사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KIEP가 2년 전부터 세계지식포럼 공동주최 자격으로 행사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KIEP는 워싱턴에 소재한 한국경제연구원(KEI), 북경사무소 등 KIEP의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경제동향 등을 파악하고 한국의 대외통상전략 및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세계지식포럼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KIEP의 참여

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최첨단지식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이해를 높여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한국경제 상황을 외국의 오피니언리더들에게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설명할 수 있어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KIEP는 세계지식포럼의 준비과정에 있어 전체주제 선정, 각 토론주제와 연사 선정, 프로그램내용과 연사의 발표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세계지식포럼은 21세기 지식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부각시키면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는 기능을 해왔다. 조직과 조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지식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는가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어왔다. 또 새로운 경제, 경영, 사회환경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활용과 가치의 창조에 대해 논의하고 사례들을 통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자고 역설해왔다. 변화관리를 위한 기업리더십, 지식경영을 통한 조직 혁신, 바이오와 나노기술로 대변되는 차세대 신기술, 디노미네이션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그때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통해 국가와 기업을 둘러싼 경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관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4. 세계지식포럼의 비전

세계지식포럼이 추구하는 비전은 ‘낙오자 없는 세계화(Globalization: No one left behind)’의 구축에 있다. 세계화가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자유무역의 증진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증대되면서 빈부격차에 따른 반세계화의 물결도 거세지고 있다. 만약에 세계화가 인류 전체가 아닌 특정 국가나 지역, 사람들의 이익추구에만 도움이 된다면 결국에는 세계화로부터 소외당하는 대다수 국가와 계층의 거센 반발 속에 실패로 끝나고 뉴욕의 9·11테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는 완전하지 못하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만이 세계화의 주요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빈곤과 좌절에 허덕이는 국가와 계층,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외환위기나 문화정체성 상실 같은 위협에 노출된 국가도 세계화에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낙오자 없는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화와 관련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국가, 지역, 계층간의 소득격차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지식격차부

터 줄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이 교육과 지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식기반 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반을 닦기 위해 개발국과 저개발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훌륭한 교육시스템이 구축되며 정보격차를 줄이고 세계 최고의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범세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보격차를 극복한다는 것은 지식을 생산, 공유, 응용하기 위해 지식에 대하여 보다 평등한 접근과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 일은 정부가 단독으로 책임질 수는 없다. 물론 정부기능이 중요하지만 다국적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비정부기구, 교사와 학생, 사회 구성원 모두 지식기반사회 전환에 필요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환에 따른 이익이 모든 이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확산시켜야 한다. 또 시장자유화과정을 가속해 건전한 경쟁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경쟁적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세계지식포럼과 같은 자유로운 지식공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정부는 물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5. 결론

2004년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한 해였다. 지난해 중동 하늘을 뒤덮은 이라크 전쟁 화마는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중동상황에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유코스 회장 구속 등으로 촉발된 유가상승마저 세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9·11테러 후 사라지기를 바랐던 테러는 인도네시아, 호주 등 이라크 파병국에 이어 민족문제로 갈등을 빚은 러시아로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 한반도 역시 북핵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구려사 왜곡’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동

북공정은 6자회담을 앞둔 한국이 고려해야 할 외교적 변수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다만 연초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대국의 경기가 조심스럽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절망 속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OECD는 ‘전진을 위한 파트너십의 구축(Building Partnerships for Progress)’을 올해의 표제로 삼았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공유해 인류번영의 길을 찾아 나서자는 뜻에서다. 이 같은 취지가 세계지식포럼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